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석가원



석가원은 편지원의 동방상단에 위치하고, 불부, 연화부, 금강의 3부 중 불부에 해당한다. 석가원에서는 부처님의 중생교화로서 지혜를 말하고 있다. 석가원은 석존을 중심으로 39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4종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석존(釋尊)과 4시존(侍尊)** - 석존은 불보, 관음보살은 법보, 허공장보살은 승보를 나타내어 3보가 형성됨을 보이고, 무능승과 비(妃)는 석존이 보리수 아래서 사마를 항복시킬 때 그 힘을 낸 것이다.

2. **불정(佛頂)존** - 부처님의 지혜(智慧)는 머리 정상의 육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냄을 말한다. 승불정, 최승불정, 광취불정, 최쇄불정 등을 말한다.

3. **부처님의 덕(德)을 보여준 제존(諸尊)** - 일체여래보는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여 인도하고, 여래호상은 중생의 복행의 원을 성취하게 한다.

4. **성문(聲聞)연각(緣覺)의 제존(諸尊)** - 4인의 연각과 8인의 성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의해 법이 현실세계에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⑩ 김재영 선생님

부처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스승의날과 부처님오신날을 보내며 생각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다. 학창시절의 나는 공부를 잘하거나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는 아니었다.

장애로 인해 상처를 받곤 했으나 누구에게도 표현은 잘 하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일도,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부르는 문장을 쓰거나 국어 시간에 시를 외워서 받아쓰기 하듯 쓰는 과제, 타 과목의 실기 등은 때때로 상처가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상처라기보다 어려움이 컸다고 해야 맞겠다.

한번은 가정 선생님께서 필기시험 점수가 높으니 이쁘지 않은 나의 자수 실기 점수를 필기 점수에 비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못한 자수가 어찌 자신의 점수와 같을 수 있느냐고 투덜댔다.

선생님께 나 자신이 보아도 가정실기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점수를 잘 주지 마시라고 하곤 조퇴를 해버렸던 일이 있다.

친구들보다 늘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학교생활에도 크게 상처받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숨은 노력과 나를 보듬어 주고 보이는 소질을 제대로 인정해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앞에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줄 서계신 선생님 중에 부처님 얼굴을 닮은 한 선생님께 자꾸 눈길이 갔다. 스승의날과 부처님오신날에 생각나는 선생님이 바로 그 선생님이다.

그분은 동덕여고 국사 선생님으로 불교학생회를 결성하고 지도하셨던 김재영 선생님이다. 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내 특별활동반은 문예반이었지만 담당 선생님이 부처님을 닮은 듯한 이유로 불교반을 택했다. 활동은 한 귀퉁이 앉아 있는 듯 없는 듯이 조용히 했고 축제나 수련회 등은 상황을 살펴 빠지기도 했다.

내 기억 속의 불교반 활동 기억은 아주 파편적으로 산재해 적지만, 동덕여고의 불교학생회는 참 유명했다.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 생각나는 스승
동덕여고 불교학생회 결성하고 지도해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행복해져"



동덕여고 불교학생회를 결성하고 지도했던 김재영 선생님.

불교학생회의 배경과 중심에 있던 김재영 선생님은 국사 시간에 가끔 부처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곤 하셨고 부처님 가까이 온 제자들이 계속 부처님 품에 머물 수 있게 하려고 개최했던 연꽃들의 행진은 합창, 연극, 탈춤 등의 공연을 펼치는 큰 축제였다. 이 축제는 1999년 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창신동에 있던 학교가 조계사와 가깝던 관계로 조계사에서 수계법회도 보고, 무진장 스님께서 오셔서 법문도 해주셨던 기억도 난다.

선생님께서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펴낸 불교성전을 주시면서 불교반 도서이니 읽은 후 반납하라고 하셨다. 끝까지 읽지 못한 그 책은 아직 나의 책장에 머무르고 있다. 이유는 생각나지 않지만 반납하기 싫었던 기억도 있고 날마다 책장에서 끝까지 읽어 달라면서 말을 걸고 있다.

학교생활 중에 선생님과 학생들은 나를 특별나게 대우하지는 않았다. 요새 기준으로 보면 편견과 차별이 심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일도 가끔 있었으나 스스로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존재감 없이 소심했던 학교생활에서 불교반 활동도 소심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 주도적으로 장애인모임 활동을 하게 했고 보리수아래 모임 결성과 운영에 보이지 않는 바탕이 되었다.

보리수아래 모임에 오셨던 선생님은 장애인이라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구성원임을 스스로 알고 자신의 바른 역할을 찾아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무조건적인 우대가 아니라 제 자리에서 역할을 하도록 지지해주는 것, 그 게 부처님처럼 살게 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시기도 했다.

열흘 전 조계사에서 선생님을 뵈었다. 선생님은 올해 봉축 공연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물으신다. 설명하는 나의 말 중간 중간 변함없이 "고럼 고럼 그래야지"라고 말씀을 하신다.

안성 도피안사에서 주중을 지내시는 선생님은 현재 불교 전반에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자 하거나 전법 활동과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붓다스터디 빠리사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다.

선생님은 "오늘의 나는 지난날 내 행동의 결과이며 오늘의 내 행동은 내일의 나를 이루는 바탕, 내일의 나를 만드는 기반이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항상 같으신 말씀, "부처님처럼 살려 노력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수시로 변화하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보며,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집착하고 경쟁할 대상이 없어지면 행복해진다"고 강조하신다.

오늘도 선생님은 "나와 함께 남에 대한 일체의 자비와 나눔은 나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마지막 인사로 하셨다.

그리고 안성으로 내려가기 위해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시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조계사의 연등이 꽃물결처럼 아름답게 장엄했다. 고마운 분들을 위한 연등을 달며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기원해본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히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종 정 설국 무명 대종사

종회의장	성묵	원로원장	각성
총무원장권한대행	녹원	총괄상임이사	성철
비구니진흥원장	혜전	특임원장	일정
대외협력위원장	대명	권역별종무위원장	현담

종단비상대책위원(무순)

덕주, 부자, 능조, 무변, 장안, 명덕, 무애, 운봉, 원공, 마애, 대명, 법륜, 법우, 지현, 법정, 각원, 종언, 영봉, 수련, 주형, 명성, 보하, 대산, 법산, 무성, 혜원, 지족, 진여 원광, 법선, 경조, 길문, 범화, 효상, 문수, 영산, 채민, 자문, 혜선, 덕암, 보성, 일주, 진관, 지안, 법경, 락현, 혜진, 일화, 원선, 법흥, 월광, 명덕, 혜담, 도성, 혜산, 일심, 채민, 선공, 상월, 덕산, 보현, 도현, 홍도, 일정, 성원, 석담, 법운, 정혜, 지광, 해원, 길문, 초연, 각성, 청산, 인경, 천무, 자인, 원일, 진허, 청산, 도광, 여영, 도현, 진광, 동림, 혜민, 마하, 자법, 혜원, 금산, 보성, 대해, 청산, 상현, 성희, 정공, 금보, 도연, 원광, 무학, 일도, 무애, 수천, 혜선, 덕암, 석용, 화광, 일화, 도진, 성관, 용담, 법수, 법흥, 원오, 선주, 상운, 여영, 일심, 효선, 지각, 동림, 정엄, 정문, 도면, 삼장, 용주, 홍도, 덕산, 마하, 성원, 법연, 효성, 상무, 법조, 지담, 수암, 성광, 호산, 정현, 진현, 일공, 예산, 혜담, 여송, 자연, 죽봉, 법우, 연화, 대성, 정원, 해응, 원동, 천태, 대안, 진성, 진암, 무천, 보성, 법춘, 혜지, 혜인, 성묵, 영봉, 무량, 해성, 진법, 현성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JOGYE ORDER KOREA BUDDHISM & CORPORATION
Http://jogyejong.or.kr E-mail : jonggyo119@hanmail.net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909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FAX : 02)720-8271
TEL : 02)2198-5022 FAX : 02)2198-5025

불기2565(2021)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전화 051)508-4509 팩스 051)508-4870

"부처님 어서 오세요~"
보현행원으로 보리이루리
무량사
주지 법천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59-9번길 온천2동
전화 010-2426-1766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주 혜총
원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전화 051)338-1008. 337-1080

(주)엘티유이엘씨
전기공사, 전문소방공사,
일반건축, 실내건축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1길4, 102호
전화 051)728-5562 팩스 051)557-5587